

#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FOCUS

재생의학 분야,  
'20년 기록적인 투자자금 유입



# CONTENTS

## 01

### 포커스

- 재생의학 분야, '20년 기록적인 투자자금 유입 ..... 1
- 

## 02

###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VUMC, EHR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살시도위험을 예측 ..... 4
  - 미국 Amazon, 원격의료 서비스 美 전역으로 확대 ..... 4
  - 유럽 원격의료시장, '26년 207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5
  - 로봇틱스 기술, 의료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약 ..... 5
  - 인도,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기술 채택이 가장 높은 국가 ..... 6
  - 디지털헬스, 정책과 규제의 변혁이 필요 ..... 6
- 

## 03

### 4대 보건산업

- 미국 FDA, 의료기기의 승인의사결정에 RWE 활용할 예정 ..... 7
  - 미국 Pfizer, 중국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프로그램 중단 ..... 7
  - 영국 Liverpool 대학, 당뇨병 치료제 semaglutide 연구결과 발표 ..... 8
  - 유럽의회, EC가 제안한 EU4Health 프로그램 채택 ..... 8
  - 인도 SII, 자국 백신 수요 확대로 COVAX 공급이 지연될 전망 ..... 9
  - 중국, COVID-19 백신 부작용에 대비하는 보험 상품 등장 ..... 9
  - 로봇공학 의료기기, COVID-19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견조한 수요 유지 ..... 10
  - 글로벌 화장품 시장, '27년까지 연평균 5.3% 증가 예상 ..... 10
-



## 재생의학 분야, '20년 기록적인 투자자금 유입

미국 재생의학연합(Alliance for Regenerative Medicine, 이하 ARM)은 '21년 3월에 공개한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에서 '20년 재생의학 분야의 △글로벌 자금 유입 규모 △글로벌 임상시험 동향 △규제당국의 치료제 승인 동향 등을 분석·발표

### [1] 개요

■ **재생의학(Regenerative Medicine)은 손상된 인체 세포와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켜서 원래의 기능으로 복원시키는 의학 분야**

- 재생의학에는 △세포 치료(Cell Therapy) △유전자 치료(Gene Therapy) △조직공학 치료(Tissue Engineering) 등의 하위 기술들이 포함
- 최근 4년간 재생의학 분야에 유입된 자금은 '17년 75억 달러, '18년 135억 달러, '19년 98억 달러, '20년 199억 달러(미국지역 118억 달러, 유럽지역 36억 달러)를 기록
- '20년 조달된 199억 달러는 △기업공개(37억 달러) △추가공모(60억 달러) △벤처캐피탈(56억 달러) △파트너십(30억 달러) △사모(12억 달러) 등 자금조달방식으로 구분
- 전 세계적으로 9만 명 이상의 환자를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220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으며 '21년에 미국에서 최소 3건과 유럽에서 5건의 치료제 승인이 예상
-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의약품청(EMA) 규제당국 전문가들은 '25년까지 매년 10-20개의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를 승인할 것이라고 전망

### [2] 재생의학 분야의 글로벌 자금 유입 동향

■ '20년에 세포, 유전자 및 조직 기반 치료법을 개발하는 생명 공학 회사에 199억 달러가 유입되어 '19년 75억 달러 규모를 크게 넘었으며 '18년 135억 달러 규모 대비 5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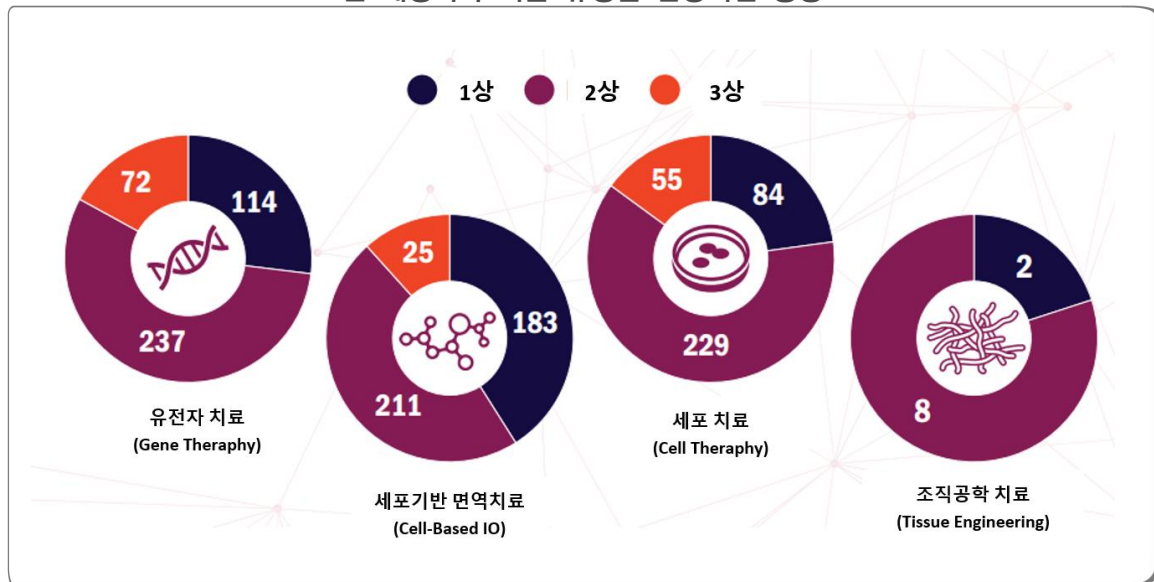
- '20년 56달러 규모의 투자가 재생의학 분야의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캐피탈 자금조달방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세포및유전자치료 개발업체인 '사나바이오테크놀로지(Sana Biotechnology)'는 '21년 2월 기업 공개를 앞두고 7억 달러를 조달
- '20년 약 100억 달러는 IPO 및 추가공모(Follow-Ons)를 통해, 30억 달러는 파트너십 및 협업 거래에서 확정된 계약금(upfront payments) 방식으로 자금 조달

### [3] 재생의학 분야의 글로벌 임상시험 동향

■ '20년 말 현재 전세계적으로 1,085개의 개발업체에 의해 1,220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임상 3상 시험은 152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규제당국 전문가들은 '25년까지 매년 10-20개의 세포 및 유전자 치료법을 승인할 것이라고 예측

- '20년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100개의 유전자, 세포 및 조직 기반 치료제 개발업체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19년 대비 약 100개사가 증가된 수치
- \* 지역별 분포는 북미 543개사, 유럽 209개사, 아시아·태평양 295개사, 중동·아프리카 25개사, 남미 13개사 등 총 1,085개 업체가 연구개발 진행 중

□'20년 재생의학 기술 유형별 임상시험 동향 □



\* '20년 임상시험을 적응증별로 분류하면 종양학(Oncology) 554건,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 94건, 단일기원 질환(Monogenetic Diseases) 87건, 감염질환(Infectious Disease) 73건, 심혈관(Cardiovascular) 66건, 혈액학(Hematology) 57건, 근골격계(Musculoskeletal) 54건, 안과학(Ophthalmology) 51건, 면역학(Immunology) 39건,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37건, 위장병학(Gastroenterology) 32건, 비뇨생식기및성호르몬(Genitourinary&Sex hormones) 25건, 피부학(Dermatology) 24건, 호흡기 (Respiratory) 20건, 기타(Other) 7건 등 총 1,220건

- 미국지역의 재생의학 개발업체는 총 512개사이며, 1상 166건, 2상 285건, 3상 54건 등 총 505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유형별로는 △유전자 치료 182건 △세포기반 면역치료 175건 △세포 치료 138건 △조직공학 치료 10건 등으로 구분
- 유럽지역의 재생의학 개발업체는 총 209개사이며, 1상 60건, 2상 236건, 3상 82건 등 총 378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유형별로는 △유전자 치료 172건 △세포기반 면역치료 110건 △세포 치료 86건 △조직공학 치료 10건 등으로 구분



#### [4] 재생의학 분야의 규제당국의 치료제 승인 동향

■ FDA와 EMA 규제당국은 '20년에 2개의 새로운 치료법과 '21년에 1개를 승인하는 등 재생의학 분야는 빠르게 성숙하고 있으며, 새로운 치료법은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심각한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전례없는 치료법을 제공

- '17년 12월 FDA는 로슈(Roche)의 희귀유전망막질환 치료제 룩스투나(Luxturna)를 최초의 유전자치료제로 승인하였고, '19년 5월 노바티스(Novartis)의 척추근위축증 치료제 졸젠스마(Zolgensma)를 승인
- '20년 FDA는 제약업체 길리아드(Gilead)의 자회사 카이트(Kite)의 CAR-T 치료제 테카투스(Tecartus)를 재발성 또는 불응성인 외투세포림프종(relapsed or refractory mantle cell lymphoma) 치료제로 승인
  - \* 테카투스(Tecartus)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R/R) 외투세포림프종' 환자 중 항암치료법의 임상반응율(reponse rate)이 90%에 육박
- '20년 EMA는 오차드 테라퓨틱스(Orchard Therapeutics)사의 유전자치료제 리브멜디(Libmeldy)에 대하여 '이염성백질영양장애(Metachromatic leukodystrophy, MLD)' 치료제로 승인
- 또한 '21년 2월 FDA는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LBCL)' 치료제로 FDA 재생의학첨단치료제(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 RMAT) 지정을 최초로 받은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의 CAR-T 치료제 브레얀지(Breyanzi)를 승인
- 미국에서는 BMS(Bristol Myers Squibb)와 J&J(Johnson & Johnson)의 암 세포 치료제와 심각한 화상에 대한 말린크로트(Mallinckrodt)의 조직기반 치료제가 출시될 예정
- 최근 재생의학에 대한 개발기업 중 일부는 규제당국의 승인거부에 부딪히거나 실망스러운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하였으나, 과거와 달리 세포 및 유전자 치료의 파이프라인은 매우 광범위하고 개발회사가 많기 때문에 재생의학부문의 성장을 지연시키지 않을 전망
- 또한 미국 FDA의 RMAT 지정 및 유럽의 우선의약품(PRIority Medicines, PRIME) 지정과 같은 혁신적인 치료법에 대한 신속한 승인 경로의 도입은 재생의학의 파이프라인의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추세
- 유럽에서 환자가 세포와 유전자 치료를 포함한 첨단바이오의약품(ATMP)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년 11월, EU집행위원회(EC)는 환자 접근성 증진, 의료 분야의 미충족 과제의 해소 및 혁신 달성을 목적으로 한 '제약 전략(Pharma Strategy)'을 발표

[AMR, 2020: Growth & Resilience in Regenerative Medicine, 2021.03.; Biopharma Dive, Record funding flowed into cell, gene therapy companies last year, 2021.03.16.]



##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VUMC, EHR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살시도위험을 예측

■ JAMA Network Open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도구는 전자건강기록(EHR)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살시도 위험을 계산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비정신과 임상 환경에서 어떤 환자를 선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지원

- 자살로 인해 매년 미국인 10만명 중 14명이 생명을 잃고 있으며, 자살은 미국 전체 사망원인 중 10번째이며, 자살 시도의 약 8.5%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
- 미국 밴더빌트 대학 의료센터(Vanderbilt University Medical Center, VUMC)의 연구원들은 EHR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살 시도 위험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
- AI 및 데이터 분석 도구는 정신건강관리 분야에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JAMA Psychiatr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범용 스크리닝 도구는 예측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자살 위험을 판단할 수 있으며, 어떤 환자에게 후속 개입이 필요한지 여부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고 가능

[Health IT Analytics, 2021.03.12.; JAMA Network, 2021.01.12.]

### 미국 Amazon, 원격의료 서비스 美 전역으로 확대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미국 아마존(Amazon)은 가상 헬스케어 서비스인 아마존케어(Amazon Care)를 '21년 여름 모든 미국 기업과 아마존 직원들에게 사용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할 예정

- Amazon Care는 병원연합체인 인터마운틴헬스케어(Intermountain Healthcare), 어센션(Ascension), 기타 의료 시스템, 홈케어 회사들과 공동으로 '가정기반치료(Moving Health Home, MHH)' 연합을 구축하여 가정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
- MHH는 의회에 로비하여 원격의료에 대한 가정 헬스케어 환급정책(reimburse policies)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Amazon Care는 일차진료(primary care) 모델을 통해 직원 의료 비용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현재 제공하는 Amazon Care 원격 의료 서비스는 워싱턴주에 있는 회사의 Amazon 직원과 가족이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주의 다른 기업으로 확대하고, 향후 수개월 내에 워싱턴 DC, 볼티모어, 시애틀로 확대되고 '21년 여름에는 미 전역 온라인 의료 상담을 지원할 예정
- Amazon의 원격의료 진출 가속화는 가상의료기업 텔레닥(Teladoc)과 기술지원 1차의료업체인 원메디컬(One Medical) 등과의 시장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

[Fierce Healthcare, 2021.03.22.; USA Today, 2021.03.17.]

## 유럽 원격의료시장, '26년 207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로스앤설리반(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유럽 원격의료시장은 '19년 44억 1천만 달러에서 연평균 29.4% 증가하여 '26년에는 4.5배인 20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인공지능(AI), 가상현실, 블록체인, 의료사물인터넷(IoMT), 웨어러블 및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의 채택은 유럽 원격의료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
- 제품 유형의 관점에서 가상 방문(virtual visits)은 전체 원격 의료 시장을 주도하여 예측기간 동안 연평균 41.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격환자모니터링(RPM) 20.4%, 모바일헬스(mhealth) 27.5%, 개인비상대응시스템(PERS) 7.7% 각각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원격의료 시장 참여자들은 △행동건강 △실제증거(RWE) 수집을 위한 원격환자모니터링(RPM) △의사간 의사소통 △소비자 웨어러블 분야에서 높은 성장 기회를 갖게 될 전망

[PRN News Wire, 2021.03.17.; Pharmaceutical Technology, 2021.02.23.]

## 로봇기술, 의료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약

■ 최근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로봇기술 활용은 의료의 발전·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고령자나 환자의 케어 향상, 관련비용 삭감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

-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아마존헬스레이크(Amazon HealthLake, AHL)'는 대량의 정보를 구조화해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하나로 AI나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한 환자정보의 자동표준화와 더불어 이용가치가 있는 의료정보를 자동 추출
- 의료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일본 M3와 반도체 생산업체 미국 NVIDIA는 공동으로 임상현장에 획기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단기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의료×AI분야 프로젝트'와 로봇기술의 조기침투를 지원
- 하드웨어 면에서는 멀리 떨어진 병동의 환자를 진단하는 원격 조작형 로봇, 병동 내 공기 중 바이러스 등을 살균하는 자외선 소독 로봇, 원격지 병원에 의약품을 배송하는 드론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의료현장에서도 로봇기술이 활용
- 소프트웨어 면에서는 바이러스 확산경로 예측, 흉부 CT영상으로 COVID-19를 식별하는 시스템, 백신 접종의 적격성이나 부작용 등의 문의에 대응하는 AI어시스턴트 등을 활용
- 단 많은 임상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형식으로 기록된 환자의 차트나 의료관련 영상, 보험청구 등 대량의 정보가 다양한 시스템에서 공유되고 있어 사용상의 편의성이 해결과제로 부상

[NIKKO AM, 2021.03.10.; TechCrunch, 2021.03.15.]

## 인도,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기술 채택이 가장 높은 국가

-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인 EY와 임페리얼칼리지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건사회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조직의 디지털기술 채택은 인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결과는 인도, 호주,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미국 등 6개국(인도 응답자 359명 포함)에서 2,000명 이상의 글로벌 HHS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기반

-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화 및 동영상 상담은 모든 기술 솔루션에서 가장 큰 활용을 보였으며, COVID-19 이전에는 조직의 39%가 전화상담을 제공하였으나 이후 81%로 증가하였고, COVID-19 이전에는 조직의 22%가 동영상 상담을 제공하였으나 이후 71%로 증가
- 그러나 인도에서는 COVID-19 이전에는 조직의 48%가 전화상담을 제공하였으나 이후 86%로 증가하였고, COVID-19 이전에는 조직의 33%가 동영상 상담을 제공하였으나 83%로 증가
- 인도의 공공부문 조직은 전화상담 및 동영상상담보다 자가도움(self-help, 조직의 92% 채택)과 온라인 자가평가(online self-assessment, 조직의 89% 채택)에 사용하는 디지털 도구를 선호했으며, 인도 응답자의 3/4은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솔루션에 대하여 긍정적인 경험을 답변

[National Herald, 2021.03.18.; Mint, 2021.03.18.]

## 디지털헬스, 정책과 규제의 변혁이 필요

- 디지털헬스는 환자 참여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환자중심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제공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디지털헬스 개발을 가로막는 정책과 규제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Runkeeper 및 MyFitnessPal 앱은 일반적인 웰니스와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Glucose Buddy 앱은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 포도당 수치, 약물, 당화혈색소(A1C), 신체활동, 탄수화물 섭취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하여 치료계획을 개발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
- 디지털헬스 기업을 위한 자금조달규모는 '20년에 216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디지털헬스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 증가는 △헬스케어 비용 절감 △건강 결과 개선 △가치기반 헬스케어 활성화 △공중보건 불균형 감소 △환자 참여 증대에 기인
- COVID-19로 인해 헬스케어분야의 혁신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회가 이러한 변화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국제·연방·州 규정 불일치 △법규 △건강보험의 환급정책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변혁이 필요

[National Law Review, 2021.02.23.; ZDnet, 2021.01.12.]





## 4대 보건산업

### 미국 FDA, 의료기기의 승인의사결정에 RWE 활용할 예정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실제임상근거(RWE)에 의존하여 환자가 공중보건혁신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 의사결정을 내리고 다양한 유형 의료기기에 RWE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

- 전자건강기록(EHR), 등록(registries), 의료비 보험청구(medical claims), 약국 데이터 및 웨어러블 및 모바일 기술로부터 생성된 피드백 자료와 같은 실제데이터(RWD) 소스의 가용성이 향상되면서 FDA 규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강력한 RWE를 생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증가

\* RWE(real-world evidence)는 RWD(real-world data) 분석으로 얻어진 의료제품의 사용, 이점 및 위험에 관한 임상근거를 의미

- 통제된 임상 시험을 전체적인 잠재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하여 평가할 수 없는 한계점으로 인해 RWD/RWE를 통한 분석방법에 의존하여 의료 제품의 실제 임상 성능에 대하여 검증
-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RWE의 사용을 검토할 때 FDA는 제출된 RWE가 규제 결정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품질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론과 접근 방식에 의존

[FDA, 2021.03.16.]

### 미국 Pfizer, 중국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프로그램 중단

■ 미국 화이자(Pfizer)가 경쟁심화로 중국 시장에서 5년만에 바이오시밀러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중국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및생산(CDMO)'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지스(WuXi Biologics)에 공장을 매각

- Pfizer는 중국 항저우의 바이오시밀러 제조 공장을 WuXi Biologics에 넘겼으며, 중국 시장을위한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기 위해 '16년에 시작된 3억 5천만 달러 투자를 철회
- 중국 항저우에서 Pfizer의 운영은 '21년 상반기에 종료되며 우시(WuXi)市에 본사를 둔 Wuxi Biologics는 이 공장을 사용하여 현지 및 글로벌 시장을 위한 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할 예정이며, Pfizer는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의약품을 계속 생산할 예정
- Pfizer의 항저우 공장 매각 결정은 '20년에 업존(Upijohn) 사업부를 다국적 제약사 마일란(Mylan)에게 매각하였지만 바이오시밀러 사업부를 유지하기로 한 이전의 결정과 다른 전략을 채택

[AJMC, 2021.03.17.; BioPharma, 2021.03.18.]

## 영국 Liverpool 대학, 당뇨병 치료제 semaglutide 연구결과 발표

■ 영국 리버풀(Liverpool)대학 연구진은 ‘미국내분비학회 연례학술대회(ENDO 2021)’에서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가 주1회 투약만으로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체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발표

- STEP1이라 불리는 이번 연구에서 체중 관련 문제를 가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27이상이거나 당뇨병이 아니면서 BMI 30 이상인 사람 1,961명을 대상으로 실험 진행  
\* BMI 수치가 25.0~29.9인 경우 과체중, 30.0 이상인 경우는 비만으로 분류
- 이번 연구에서 14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체(body)성분을 평가하고 체지방과 위(stomach)지방에 대한 치료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임상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이중에너지흡수계측법(dual-energy absorptiometry, DEXA)’을 사용
- 실험자들은 68주 동안 매주 한번씩 2.4mg의 semaglutide나 위약(placebo)을 스스로 투여하도록 무작위로 배치받았으며, 위약을 투여받은 그룹이 2.4% 효과를 보인 반면 semaglutide를 투여한 그룹은 평균 15% 정도 체중 감소
- semaglutide 투약자의 1/3 이상이 체중의 20% 이상 감소했으며, 많은 환자들은 심장질환, 혈당 수치, 삶의 질 등의 개선을 경험

[SciTechDaily, 2021.03.20.; Nejm 2021.03.18.]

## 유럽의회, EC가 제안한 EU4Health 프로그램 채택

■ EU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EU4Health는 EU의 의료 및 헬스케어 직원, 환자 및 보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던 COVID-19에 대한 EU의 대응이며, 총 51억 유로를 투자하는 EU4Health는 EU 국가, 의료기관 및 비정부기구(NGO)에 자금을 제공할 예정

- EU4Health는 EU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국경간 건강 위협에 대한 공동 노력을 지원하며, 미래의 건강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EU의 준비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COVID-19 이후 회복에 기여할 전망
- EU4Health는 △COVID-19와 같은 국경간 건강 위협 처리 및 위기관리 능력의 향상을 위한 보건 시스템의 탄력적인 운용 △암 치료, 팬더믹 대비 개선, 의약품 가용성 및 혁신 투자를 통한 유럽보건연합(European Health Union)의 구축 △디지털헬스 및 질병 예방 역량의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
- 유럽연합이사회(European Council)의 정식 채택 이후 EU4 Health의 '21년의 첫 번째 실행프로그램(work program)이 시행될 예정

[European Commission, 2021.03.09.]

## 인도 SII, 자국 백신 수요 확대로 COVAX 공급이 지연될 전망

### ■ 인도에서 COVID-19 백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인도혈청연구소(Serum Institute of India, SII)에서 생산된 COVID-19 백신 확보가 지연되어 백신 수출을 일시 중단

-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와 SII의 계약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 백신(인도에서 COVISHIELD로 지칭)을 코백스퍼실러티(COVAX Facility)에 제공하고 이를 인도를 포함한 Gavi COVAX AMC에 참여하는 64개의 저소득 국가에 공급

\* COVAX Facility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세계보건기구(WHO)를 공동 주관기구로 하는 글로벌 백신 공동구매·배분·공급 기구

- 현재까지 COVAX는 2,800만 COVISHIELD 투여분을 SII로부터 공급받았으며, 계약에 따라 3월에 4천만 투여분, 4월에 최대 5천만 투여분을 공급받을 예정
- 그러나 인도가 COVID-19 확진자수의 급증에 따른 백신 내수 공급을 위해 COVISHIELD 백신 수출을 일시 중단하면서 COVAX Facility가 3~4월 인도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백신 공급이 차질이 빚을 것으로 예상

[UNICEF, 2021.03.25.; Economic Times, 2021.03.26.]

## 중국, COVID-19 백신 부작용에 대비하는 보험 상품 등장

### ■ 중국은 자국산 백신을 28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1월에는 백신 무료 접종계획도 발표했지만 3월초 기준 중국내 접종률은 3.6%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

- 중국의 백신관리법은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으로 사망, 고도 후유장애, 기관·조직에 상해가 생긴 경우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
- 단 예방접종에 따른 보조 비용은 성, 자치구, 직할시 같은 지방정부의 경비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작용에 대한 보상은 민간보험 활용을 장려한다고 규정하는 등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민간보험에 위임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대형 보험사들은 코로나19 백신으로 특화된 '백신보험' 판매에 나섰다, 일례로 업계 1위 중국인민보험(PICC)은 65세까지를 대상으로 COVID-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고도 후유장애, 입원 등을 보상하는 상품을 출시

\* 기간은 1년으로 보험료를 20위안으로 낮게 책정하고 사망 시 최고 50만 위안을 지급하며, 백신 접종 후 면역효과 나타나지 않아 PICC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COVID-19로 인한 폐렴을 진단받은 후 18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장애로 인정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21.03.09.; 日本經濟新聞, 2021.03.01.]

## 로봇공학 의료기기, COVID-19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견조한 수요 유지

- 인튜이티브서지컬(Intuitive Surgical), 스트라이커(Stryker) 및 짐머바이오테트(Zimmer Biomet)는 모두 생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선택적 수술(elective surgery)이 중단됨에 따라 '20년에 시술량이 감소했으나 로봇공학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 유지
  - 정형외과 부문은 '20년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J&J, Stryker 및 Zimmer는 모두 '20년에 고관절 및 무릎 사업의 감소를 기록했으며 일부 부문은 '19년에 비해 두 자릿수 감소
  - 그러나 선택적 수술의 감소로 병원은 재정적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tryker와 Zimmer는 모두 4분기에 마코(Mako) 및 로사(Rosa) 로봇시스템에 각각 100개 이상의 시스템을 판매하는 등 로봇 수요는 강세를 유지
  - Stryker는 Mako를 통해 무릎 전치환술, 부분치환술, 고관절 전치환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Zimmer는 '20년에 200-300개의 Rosa 시스템 판매 목표를 초과했고 Rosa는 무릎 전치환술만 제공하지만 '21말 무릎 부분치환술과 고관절 전치환술 제품 출시를 계획
  - Intuitive Surgical은 '20년에 총 936개의 다빈치(da Vinci) 시스템을 판매했으며, 메드트로닉(Medtronic)은 휴고(Hugo) 연조직 시스템에 대해 '21년 3월에 CE 마크와 FDA에 '실험기기 면제(IDE)'를 제출할 계획이며, '21년 4분기에 시장에 출시될 예정

[Medtech Dive, 2021.03.18.; Analytics Insight, 2021.03.05.]

## 글로벌 화장품 시장, '27년까지 연평균 5.3% 증가 예상

- 시장조사·컨설팅업체 얼라이드마켓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19년 세계 화장품 산업은 3,802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21년부터 연평균 5.3% 증가하여 '27년 4,63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스킨케어 제품, 천연 성분의 화장품 수요, 유기농 화장품이 수요가 증가하고 포장 스타일과 마케팅 전략의 변화가 글로벌 화장품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으나, 첨단미용시술(advanced beauty treatments)의 등장과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시장 성장의 방해요소로 작용
  - '19년 스킨케어와 선케어 제품 카테고리가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2/5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 발달과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가용성과 미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27년까지 지속적으로 화장품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21~'27년 기간동안 데오드란트(deodorant)와 향수 부문은 연평균 7.2% 증가하고, 지역별로 아시아·태평양시장은 전체 시장의 1/3을 차지하며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

[Beauty Packaging, 2021.03.15.; PR Newswire, 2021.03.15.]